

아카드어 문학 작품에 나타난 종교적 죄

윤성덕*

[국문초록]

고대 서아시아의 종교는 다신교 체제이며 현세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사후 세계나 윤리적 가르침에 관심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카드어 문서들을 보면 제의적 죄라는 개념이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제의적 죄를 가리키는 아카드어 낱말들의 용례를 조사하고, 그 이면에 깔려있는 종교적 전통을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셋투(*šettu*), 셋투투(*šettūtu*), 아르누(*arnu*), 안누(*annu*), 타르기구(*targīgu*), 하투(*haṭū*), 히티투(*hiṭītu*), 히투(*hīṭu*)라는 낱말들을 조사한 결과 제의적 죄는 제의적 실수를 가리키고, 개인이 모르고 짓는 죄라고 간주하였으며, 신들은 자비를 베풀어 이 죄를 용서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질병이나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이때 직업 종교인은 기도나 주술, 주문을 이용해서 개인이 지은 종교적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정치인들은 상대방이 지은 죄를 지적하면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주하였다. 후대 신-바빌론 시대가 되면 이런 전통적

*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강사

주제어: 고대 서아시아 종교, 종교적 죄, 제의적 실수, 용서, 처벌, 기도, 개인적 신앙
ancient West Asian religion, religious sin, ritual mistake, forgive, punish, prayer, individual faith

인 틀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거나 벌을 받는 일을 미리 예방하려는 기
도나 행위가 강조되었고, 개인적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죄를 짓는 일 자
체에서 구원받기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고대 서
아시아 종교전통이 개인적 신앙 중심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이었다.

1. 들어가는 말

고대 메소포타미아 종교는 자연계의 힘이나 천체를 신격화한 다신교 체제이다. 오랜 시간 동안 변화하는 역사에 적응하며 종교가 발전하다보니, 초기에는 농업이나 목축업과 관련된 풍요 종교의 전통으로 분류할 수 있는 태양신, 바람과 비의 신, 풍요로운 수확을 약속하는 여신들이 최고신으로 군림하다가, 국가 체제 발전과 함께 나타난 국가 공식 종교의 전통으로 분류할 수 있는 도시 수호신이나 전쟁의 신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신들은 각 시대의 필요에 따라 주요 신의 자리를 지키다가 밀려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신들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더 강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는 윤리적 규정과 관련된 전통을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며, 후대 유대 전통에 가야 본격적인 윤리와 죄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¹⁾ 수메르어나 아카드어로²⁾

1) 예를 들어 유대 사상은 선과 악 또는 정결과 부정의 문제를 이야기 할 때 ‘제의적 죄’와 ‘종교적 죄’를 구별한다고 알려져 있다. Jonathan Klawans (2000), *Impurity and Sin in Ancient Juda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3-42를 참조하라.

2)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아카드어라고 썼으나 이 낱말은 원어에서 ‘ak-kad’라고 항상 ‘k’ 자음을 반복해서 기록한다. 셈족어 필기체계가 자음 위주이며 모음표기가 부차적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반복되는 자음을 음역에 반영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반복된 자음을 통해 명사의 형태가 변하고 의미가 변하든지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며 수동태/능동태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악카드’라고 써야 옳지만, 우리말 자음 ‘ㄱ’이 받침 자리에 오면 대표 자음 ‘ㄱ’으로 표기하므로 ‘악카

작성된 종교 관련 문서들, 신들이 등장하는 문학적 작품들을 보면 ‘선’이나 ‘정의’라는 개념이 대략적으로 나타날 뿐 윤리적 행동규정으로 정형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윤리적 개념들은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선전선동에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렇다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종교는 선행과 보상 또는 죄와 벌이라는 사고틀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와 반대로 아카드어로 작성된 문서들을 보면 ‘죄’나 ‘악’과 관련된 낱말들이 등장하며,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이런 개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³⁾ 물론 죄나 악이 모두 종교적인 개념은 아니다. 사회적인 관습에 어긋난 행위나 상식적인 한도를 벗어난 행위도 죄나 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기록 자료가 신이나 신과 관련된 종교체제의 범위 안에서 죄나 악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신에게 짓는 죄가 있다면 제의적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제의적 죄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수행된 행위를 가리키는 말인가? 기록 자료에서 종교적 죄로 규정된 행위는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 논문은 죄나 악을 가리키는 아카드어 낱말들의 용례를 분석하여 종교적 의미가 있는 개념들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고대 서아시아 종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분석 대상이 되는 글

드’ 정도가 최선의 음역이다.

3) 예를 들어 학자들은 고대 서아시아 창조신화에서 인류는 죄를 지은 신 킹구(Qingu)의 피와 흙을 섞어 만들었기 때문에 평생 신들을 위해 노동을 해야 할 운명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났음과(Glenn S. Holland [2009], *Gods in the Desert: Relig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p. 125-126) 고대 아카드 왕국은 나람-씬 왕의 제의적 죄 때문에 무너졌다는 주장을 담아있음을(Daniel C. Snell [2011], *Relig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6-37) 지적하였다. 신-아시리아 제국 사르곤 2세의 죄에 대해서는 Ann M. Weaver (2004), “The “Sin of Sargon” and Esarhaddon’s Recoception of Sennacherib: A Study in Divine Will, Human Politics and Royal Ideology,” *Iraq* 66, pp. 61-66을 보라.

의 문맥과 문학적 양식을 고려하고, 또 그 문서가 작성된 시대적 배경을 분석하여, 이런 개념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추정하려고 한다. 각각의 경우가 메소포타미아 종교 체제나 비교 가능한 다른 문화권의 종교와 어떤 상호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도 묻게 될 것이다. 물론 조사대상이 되는 문서들이 문학적인 자료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어느 지방에서 기록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학문적인 고고학 발굴 결과를 통해 발견된 유물이라도 훨씬 고대에 기록된 문서가 특정 시대의 지층에서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잘 알려져 있는 왕의 왕정문서처럼 비교적 정확한 배경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시적인 관찰을 하기 어려운 방법론 상의 문제가 있음을 밝혀둔다. 연대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전반적인 성격으로 간주하고, 일정한 규칙을 찾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 낱말별 용례 조사

이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죄’나 ‘악’을 가리키는 아카드어 낱말은 다음과 같으며,⁴⁾ 어원별로 묶으면 모두 네 가지 개념을 얻을 수 있다.⁵⁾

- ‘아르누’(amu)라는 낱말은 ‘죄, 범법 행위, 악행’이라는 뜻과 그 결과로 따라오는 ‘처벌, 벌금’을 가리키는 명사다. 고대부터 계속해서 자주 사용되던 말이다(CAD A/2 294-299). ‘안누’(annu)라는 말은 사실 ‘아르누’와 같은 말인데 중간에서 자음동화 현상이 일어나면

4) 아카드어 낱말은 다음 사전에서 인용한다. Martha T. Roth et al. eds. (1959-2010), *The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IL: The Oriental Institute/Glückstadt: J. J. Augustin Verlagsbuchhandlung. (= CAD) 이 글에 사용된 모든 약어도 이 사전을 기준으로 한다.

5) 이 외에 피필루(pipilú)라는 말도 있지만 용례가 그리 많지 않고 논문의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

서 ‘안누’가 된 것이다. 역시 ‘죄’라는 뜻을 가진 명사인데 그렇게 자주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CAD A/2 136*).

- ‘하투’(ḥatû)라는 동사는 ‘실수를 범하다.’는 뜻과 ‘죄를 짓다.’는 뜻으로 폭넓게 사용된다(*CAD H 156-158*). 고대(OB)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카드어 문서에 계속해서 사용되었다.⁶⁾ ‘히티투’(ḥiṭṭu)는 매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손해, 손실’ 또는 ‘부족, 결핍’을 가리킬 때도 있고, ‘부주의한 행동, 실수’ 또는 ‘범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CAD H 208-210*). ‘히투’(ḥītu)라는 명사도 있는데 ‘손실’이나 ‘손해’를 가리키기도 하고, ‘부주의한 행동’이나 ‘죄, 범죄’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벌’을 의미하기도 한다(*CAD H 210-212*).
- ‘셋투’(šettu, šettu)라는 말은 ‘부주의한 행위’나 ‘(무언가를 빠뜨리는) 실수’를 가리키는 명사이며 오랜 기간 동안(OB, SB, NB) 계속 사용되던 말이다(*CAD Š/2 339-340*). ‘셋투투’(šettūtu)라는 말은 ‘셋투’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로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한 시대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된 말이다(*CAD Š/2 340*).
- ‘타르기구’(targīgu)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명사로 특정한 방언(SB)에만 나타나는 낱말이다(*CAD T 228-229*). 특히 이 말은 아시리아⁷⁾ 왕들의 호칭에 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모든 죄인들을 파멸시키는 자’ 정도의 뜻을 가진 호칭을 만들어 왕을 칭송하였다.

6) 아카드어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방언을 고대, 중세, 신-아시리아어(OA, MA, NA)와 고대, 중세, 신-바빌론어로 나눈다(OB, MB, NB). 그 외에 아시리아 제국에서 공식 문서를 작성할 때만 사용한 문어체는 표준-바빌론어(SB)라고 부른다.

7)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아시리아라고 썼으나, 이 이름은 원래 Aš-šur라고 쓰며 자음 š이 두 번 반복되며 나타난다. 한글로 자음 š을 표기하기는 어려우나 ‘스’를 이용해서 ‘앗슈르’라고 쓰는 것이 가장 원어에 가까운 음역이다. 아시리아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어 전통을 따라 영어권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따라 쓴 것으로, 원어에 없는 그리스어 어미가 첨가된 형태다.

이런 낱말들이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문학양식 별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고대 서아시아 문학작품을 현대의 문학적 개념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일이지만, 일단 특정한 문서의 기능이나 기록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시문에서 평서문으로 종교적 성격의 문서에서 실제적인 문서로 이동하며 논의한다.

2.1. 기도문

가장 종교적이고 시적이며 종교적 죄를 많이 언급한 문학 양식은 기도문이며, 죄의 정의부터 고백과 후회, 그리고 용서까지 다양한 문맥이 나타난다.

2.1.1. 죄의 정의

ša ilšu la išu ma'du arnūšu	(1) 많도대! (자기) 신이 없는 자의 죄여. (AfO 19, 57:110, Prayer to Marduk)
-----------------------------	--

마르둑 신에게 바치는 기도문에 포함된 이 말은 부주의하게 신께 죄를 많이 짓는 자들은 마음 속에 신을 모시지 않아서 그렇다고 분석하고 있다. 평소에 신을 독실하게 섬기던 사람이라면 부주의하게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죄란 신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정의를 잘 보여주고 있다.

uzzu nuggat ili šitta (var. šittu) gillat u hiṭṭu	(2) 부주의한 행위, 죄, 그리고 실수를 향한 신의 분노 (Loretz-Mayor, <i>Šuila</i> 46 r. 5)
--	--

이 경우 ‘죄’와 관련이 있는 낱말들을 열거하는 전형적인 표현인데, 이런 행위들 때문에 신이 분노한다고 표현한다. 여기서 신이 분노하는 이 유나 그 기준을 알 수는 없지만, 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가 종교적인 죄이

며 그 죄를 향한 신의 반응이 잘 드러나 있다.⁸⁾ 기도문의 일부이기 때문에 결국 신께 용서를 빌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2. 죄가 가져오는 결과

iḫtiṭamma marṣāku ibakkīka	(3) 그는 당신께 죄를 지어놓고 (이제) 당신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4R 54 No. 1:17, SB)
----------------------------	--

신께 죄를 지어 그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제 와서 신에게 불평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죄를 지으면 신에게 처벌을 받는다는 점, 그런 경우에는 불평이 아니라 올바른 주술과 주문으로 속죄를 해야 한다는 점 등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제의적 죄의 개념을 전제로 삼고 하는 말이다.

2.1.3. 죄를 고백

[ē]gi ana iliya aḫti ana ištariya	(4) 내가 내 (남)신께 잘못했고 내 여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KAR, 39 r. 19)
-----------------------------------	---

자기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도문이다.

kīma ṣubāti labšāku ama alme[n]	(5) 수없이 많은 죄를 내가 마치 옷처럼 입었습니다. (4R 59 2:25)
---------------------------------	---

죄를 고백하며 후회하는 문맥인데, 죄를 옷에 비교하고 있다. 이런 문학적인 표현은 잘못된 행위가 기도자 본인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외부

8) 인간이 신께 죄를 짓고 신이 분노하여 처벌한다는 개념에 관하여 Jean Bottéro (2004), *Religion in Ancient Mesopotami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228-229를 참조하라. 보테로는 인간에게 화를 내는 주체가 공인된 신들일 수도 있고 그보다 낮은 지위의 잡신들일 수도 있음을 밝힌다. 이렇게 나쁜 일을 일으키는 잡신들은 나중에 위대한 신들의 부하나 도구로 흡수된다.

적 존재임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며, 옷을 입는 것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옷을 벗는 것처럼 죄를 제거하고 깨끗해질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ḥiṭti ša ina zumriya [GÁL-a]	(6) 내 몸 안에 [있는] 죄 (BMS, 50:18)
------------------------------	--------------------------------

이 문장은 죄가 자기 몸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죄의 존재가 물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현재 이 죄가 내 몸 속에 있지만 나갈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2.1.4. 죄 지은 일을 후회

annūa ina qaqqari ukabba[s]	(7) 내가 내 죄를 땅에 (던지고) 짓밟았습니다. (AfO 19, 51:71)
-----------------------------	--

자기 죄를 고백하며 후회하는 문맥이다. 흥미로운 부분은 죄가 어떤 물건인 것처럼 땅에 던져서 발로 밟는다고 말한 문학적 표현이다. 마치 죄가 본인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외부적인 존재인 것처럼 표현하여 잘못된 행위를 타자화시키고, 이제 기도자 본인은 이런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2.1.5.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기

ina qibītika ... aranšu linnasiḥ	(8) 당신께서 명하셔서 그의 죄를 지워 주시기를 (4R 17:57f)
7-it adi 7-it aranšu puṭru	(9) (에르빌룰루 신이시여) 그의 죄를 일곱 번에 일곱 번씩 제거해 주소서. (KAR, 161 r. 5f)
ahuz qāssu puṭur aranšu	(10)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AfO 19, 59:151, Prayer to Marduk)
Šamaš bēl dīni lipaṭir arni	(11) 재판의 주인 샬마쉬 신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Šurpu iv 93)

이 네 문장은 모두 죄 용서를 비는 기도문이다.⁹⁾ 용서한다는 말은 ‘나 싹후(nasāhu)’라는 동사를 썼는데, ‘제거하다, 뽑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죄는 잡초를 제거하듯 없앨 수 있는 존재로 표현하였다. ‘파타루(paṭāru)’라는 동사는 원래 ‘풀다, 느슨하게 만들다’는 뜻과 ‘해방하다’ 그리고 ‘취소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사람이 어떤 저주에 속박을 당하는 것이고, 죄를 용서 받으면 거기서 벗어난다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2.1.6. 신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ša ḥītu iḥṭu tagammilšu atta	(12) 당신은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BMS, 18:8)
mupassisu ḥiṭāte	(13)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Streck, <i>Asb.</i> 36 iv 38)
mušētiq lumni ḥiṭte u gillate maruš[te]	(14) 악과 부주의한 행위와 죄를 제거하시는 분 (LKA, 50:8, SB)

이런 말들은 모두 자비를 베푸는 신들을 부르는 호칭이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겠으나,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신을 찾아 이런 말로 위로하며 용서를 청하는 것이 종교행위의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

2.1.7. 모르고 지은 죄

Ea Šamaš Marduk minû annima	(15) 에아, 샬마쉬, 마르둑 신이시여! 내 죄가 무엇입니까? (BBR, 26:79)
-----------------------------	--

9) 신에게 죄를 지었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고대 서아시아 사람들이 자기와 신의 관계를 친밀한 부자관계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Thorkild Jacobsen (1976), *The Treasures of Darkness: A History of Mesopotamian Relig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 161을 참조하라.

가장 높은 반열에 드는 신들을 호명하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 이 문장은 기도자가 겪는 고통이 죄의 결과 신들이 내린 처벌임을 전제하고, 도대체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어느 신에게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고, 그래야 죄를 용서받을 방법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반면에 이 말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없으나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죄를 알려줄 직업 종교인이 필요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¹¹⁾

ḥīta ša ēpušu u[l īdi]	(16)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Craig, ABRT 1, 14 r. 1)
------------------------	--

위에서 언급한 ‘모르고 지은 죄’를 아주 잘 보여주는 문장이다.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나 재난을 볼 때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는데,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바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고백이다. 그러므로 다음 단계는 전문 종교인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아는 죄와 모르는 죄를 모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된다.

10) 판테어툰은 모르고 지은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실수였다고 변명하며 처벌을 경감 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K. van der Toorn (1985), *Sin and Sanction in Israel and Mesopotamia, A Comparative Study*, Assen: Van Gorcum, pp. 94-97. 한편 자신이 신께 죄를 짓지 않아도 질병이나 재앙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녀가 흑마술을 이용해서 개인 수호신을 쫓아 버리고 잡귀들이 들었을 때이다. Tzvi Abusch (2002), *Mesopotamian Witchcraft, Toward a History and Understanding of Babylonian Witchcraft and Literature*, Leiden: Brill, pp. 27-64를 참조하라.

11) 직업 종교인이 죄를 씻어내는 의식에 대한 연구는 지면 관계상 여기서 상술할 수 없으나, 제사장에 관해서는 W. Sallaberger and F. Huber Vulliet (2005), “Priester,”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10, 7.8. Lieferung, pp. 632-633을 참조하라. 정결례를 통해 죄를 씻고 병을 치료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Jo-Ann Scurlock and Burton R. Andersen (2005), *Diagnoses in Assyrian and Babylonian Medicine, Ancient Sources, Translations, and Modern Medical Analyses, Translated and with Commentary*,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를 참조하라.

2.2. 점술문서

비슷한 성격의 종교 관련 문서들 중 점술문서가 있다. 역시 질병이나 재앙에 대처하기 위해 기록한 글이지만 전문 종교인들이 참고문헌으로 사용하기 위해 좀 더 전문적인 제의와 주문들을 모아놓은 글이다. 죄를 씻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정결예식을 기록하거나 점성술 관련 징조를 모아 놓은 문서들이 여기 해당한다.

2.2.1. 죄의 정의

[ni]q'āte [i]na epāše la tušah[ta]	(17) 제사를 드릴 때 아무런 실수도 하지 말아라. (KAJ 29, 1:9, MA)
------------------------------------	---

이 문장은 의심할 여지없이 완벽한 제의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실수 때문에 그 기준에 들지 못할 때 제의적 죄가 성립되며, 제의를 정확하게 실행하지 못하는 행위가 죄인 것이다. 죄를 지으려는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실수를 저지르면 죄로 간주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런 태도는 행위자의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대 종교와 큰 차이를 보여준다.

2.2.2. 죄를 고백

šettūtu lū ēpuš	(18)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당신의 종입니다.) (BMS, 11:16)
-----------------	--

이 문장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문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향한 자신의 충심이 변한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장이 전문 종교인들이 사용하는 지침서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문장은 의뢰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신을 섬기는 신심은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는 주문으로 사용되었다.

2.2.3. 죄가 가져오는 결과

lū GIDIM ša ina aran (var. arni) DINGIR u šeret šarri mītu	(19) 신께 죄를 짓거나 왕에게 죄를 범하여 죽은 자의 유령 (Or NS 24, 244:2, SB inc.)
---	---

이 문장은 아시리아 제국에서 사용되던 주문의 하나로 신께 죄를 지어 죽어 유령이 된 자를 언급하고 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죽은 자는 사후 세계로 가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나 죽은 후 후손들의 정성에 따라 지하세계에서 지내는 삶의 질이 결정된다. 이 문장에서 신께 죄를 짓고 죽은 자의 유령이 겪을 비극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2.2.4. 죄를 용서

tuppi arnišu hiṭātišu gillātišu māmātišu tumamātišu ana mē ŠUB-a	(20) 그의 잘못, 실수, 범죄, 맹세가 기록된 서판이 (강) 물속에 던져지기를! (Šurpu IV 79)
---	--

이 문장은 어떤 사람의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죄가 사라지도록 주문을 외우는 상황을 보여준다. 주술적인 정결례는 전통적으로 물을 사용해서 거행하였고, 직접 물로 씻거나 아니면 의뢰인의 소지품을 강물에 가져다 던지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 문장에는 의뢰인의 죄가 기록된 (가상의 또는 실제) 서판이 물속에 던져지기 바란다고 주문을 외고 있다.

ešatu ušteššera dalhātu izakkâ arni māti DU8-ar	(21) 무엇이든 뺄어버진 것을 바로잡을 것이요, 무엇이든 문제가 되었던 것이 깨끗해 질 것이며, 나라의 죄가 사라질 것이다. (ACh Supp. Ištar 33:57)
--	---

이 문장은 바빌론¹²⁾ 지역에서 발견된 점성술 관련 서적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천체를 관측한 결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점괘를 풀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쉬타르 여신이 상징하는 금성을 살피고 길조가 보여서 모든 잘못된 행위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나라의 죄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때 죄를 지은 주체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죄로 간주되었는지 궁금하지만, 더 자세한 문맥은 알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예에 비교해 본다면 국가를 대표하는 왕이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사항을 어겼을 때가 이런 경우에 속하는데, 이 맹세가 종교적 조항들인지 정치적 계약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ilu ana amēli ḫiṭātišu upaṭṭaršu	(22) 신이여,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TCL 6, 1:29)
gillatu lissù ḫiṭītu lišallimu	(23) 그들이 죄를 제거하고 실수를 고치게 해 주소서. (Šurpu IV 72)

이 문장들도 죄 용서를 비는 주문의 일부이다. 전문 종교인들이 의뢰인들이 지은 제의적인 죄를 용서받도록 도와주는 주문과 주문을 사용하면서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2.3. 찬양시

신을 높이는 찬양시 내용 중에도 종교적 죄가 언급되고 있다.

12)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바빌론이라고 썼으나, 원어로 Bāb-ili이기 때문에 ‘바빌리’ 또는 명사 절대형을 따라 ‘바빌’이라고 불러야 한다. 바빌론이나 바빌로니아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들이 부주의하게 그리스어 어미를 첨가한 형태로, 영어권 세계에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으며, 외래어표기법은 이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2.3.1. 죄의 정의

epēš šetṭi kāpidu	(24) 실수를 저지르려고 계획하는 자 (BWL, 130:96, Hymn to Šamaš)
-------------------	---

사실 의도적으로 부주의한 행위를 하려고 계획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여기서는 제의적 규칙을 유의해서 지키려는 의도가 애초에 없는 사람은 결국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말로 보인다. 태양신 샤마쉬에게 바치는 찬양시이기 때문에 이런 제의적으로 부주의한 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2.3.2. 죄를 용서

[šuss]i šettum ukkiš hi[tīssu]	(25) 실수를 [없애주시고 그의] 죄를 제거해 주소서 (ZA 61, 54:98, Hymn to Nabû)
--------------------------------	--

문맥은 용서를 비는 전형적인 기도문이다. 현재 나부 신에게 바치는 찬양시의 일부로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부 신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2.4. 지혜문학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언들을 속담이나 가르침의 형태로 저술한 지혜문학 작품들 중에도 종교적 죄가 언급되어 있다.

2.4.1. 죄가 가져오는 결과

kīma ša ana ilišu ḥiṭṭam ublam anāku ettenpuš	(26) 내가 자기 신께 죄를 지은 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VAT 8485:5f, OB lit.)
---	--

화자는 자기가 마치 신께 죄를 지은 자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제의적 죄를 짓고 신에게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죄와 벌의 상관관계를 전제하고 있지만, 이미 벌어진 비극적인 상황을 놓고 수긍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태도가 지혜문학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2.4.2. 죄를 용서

<p>palahu damdqa ullad niqi balatu [u]ttar u teslitu ami [ip]attar</p>	<p>(27) 존경하는 마음은 호감을 낳고, 제물은 생명을 주며, 기도는 죄를 용서해 준다. (BWL, 104:143-145)</p>
--	--

적절한 행동지침을 가르치는 속담들이 하나로 묶여 지혜로운 충고 (Counsels of Wisdom)를 이루고 있는데, 기도를 드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종교적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2.5. 신화와 설화

고대 문학작품들 중 신화와 설화에도 종교적 죄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2.5.1. 죄를 고백

<p>gellēt mātiya šupšuqa imīdu arnu.MEŠ</p>	<p>(28) 내 나라가 지은 죄가 심각하고, 그 죄가 너무 많구나. (TN. Epic iv 27; vi 33)</p>
---	--

이 문장은 죄를 지은 당사자가 개인이 아니라 나라라고 언급하는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이런 표현을 이해하려면 이 글이 ‘투쿨티니누르타 서사시’(Tukulti-Ninurta Epic)에 나온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아시리아 제국의 유명한 왕 투쿨티니누르타를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시이기 때문에

매우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주인공들의 독백이나 기도문도 직접 인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투쿨티니누르타에게 대항하던 바빌론의 왕 카슈틸리아쉬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은 매우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록되었으며, 이 문장은 전쟁을 벌여 승리한 아시리아 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패자의 입을 빌어 죄를 고백시키고 있는 것이다.¹³⁾

2.5.2. 죄가 가져오는 결과

iškun Anu miṭṭa la pādâ elu targîgi	(29) 아누 신께서 죄인을 향해 무자비한 도끼를 휘두르셨다. (TN. Epic ii 27)
-------------------------------------	--

이 문장은 위에서 언급한 투쿨티니누르타 서사시에 나오는데, 아누 신께서 죄 지은 자를 처벌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어떤 경우이건 아시리아 왕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신의 처벌을 받게 되리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신이 처벌하는 죄는 제의적 죄겠지만, 정치적으로 전용되는 예라고 볼 수 있다.

ša anni linnadinma šunu liktūnu	(30) 죄 지은 자를 잡아오자(그리고 죽이자). 그래서 그들(다른 신들이) 재신임을 받게 하자. (En. el. VI 16)
---------------------------------	---

죄 지은 자의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 이 문장은 바빌론 창조신화 ‘에누

13) 오펜하임이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이 살고 있는 물리적인 현세가 신화의 세계와 소통하는 장은 정치 지도자의 지위와 그 정통성의 종교적 승인, 그리고 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A. L. Oppenheim [1977], *Ancient Mesopotamia, Portrait of a Dead Civiliz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191). 아시리아 왕들의 정치 이념과 종교의 관계에 관해서는 M. Liberani (1979), “The Ideology of the Assyrian Empire,” *Power and Propaganda, A Symposium on Ancient Empires*, Mogens Trolle Larsen ed., Mesopotamia 7, pp. 297-317, esp. 301, 311을 참조하라.

마 엘리쉬'(Enuma elish)에 나오는 말이다. 마르둑과 티아맛의 전쟁이 끝나고 논공행상을 따질 때가 되었는데, 하위급 신들의 노동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기로 한다. 그리고 마르둑에게 대항하던 티아맛 군대의 사령관을 죽여서 그 피를 섞어 인간을 만들게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죄를 지은 자는 마르둑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벌인 다른 신을 가리키고, 그 신을 처벌하여 다른 신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죄를 짓고 죽을 수도 있는 신존재, 죄의 심판과 처벌에 대한 개념이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죄가 인간이 신에게 짓는 제의적 죄와 달리 신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 속에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인 종교적 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ša iḫtûkama ... tušta[mīṭ]	(31) 당신께 죄를 지은 자들을 당신이 죽였습니다. (BA 2 485 iii 25f, Irra)
----------------------------	---

이 문장은 ‘에라 서사시’(Erra Epic)라고 부르는 신화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이 신화는 저승의 신 에라가 이승에 올라와서 온갖 재난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다가, 자기의 부관인 이슌과의 대화를 통해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고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금 이 말은 에라에게 하는 말로 죄 지은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 무서운 신이라고 말하며 그를 위로하고 있다. 즉 신에게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는 처벌을 받는다는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2.5.3. 재판과 죄를 선포

bēltu issīma šasē arnimma	(32) (아누나의 재판관 일곱 명이) 큰 소리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ASKT, p. 120, r. 9f, Inanna's Descent)
---------------------------	---

자신의 영역이 아닌 지하세계로 내려가 에레쉬키갈의 왕좌를 빼앗으

려던 인안나는 오히려 계약에 빠져 모든 신적인 능력을 빼앗긴 채 붙잡히게 된다(‘이쉬타르의 저승여행’ Descent of Ishtar). 이때 아누나의 재판관 일곱 명이 나타나 인안나의 행위는 죽어 마땅하다고 유죄 선고를 내리는 순간을 묘사한 부분이다. 일단 지하세계에 내려가면 재판을 받고 지은 죄에 관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상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으며, 신도 예외 없이 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인안나가 지은 죄 역시 신에 대항하여 지은 죄이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 인간이 지은 종교적 죄와 다르다.

2.6. 왕정문서

정치인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남긴 문서들 특히 왕정문서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역사와 관련된 문서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대 순서로 나열한다.

2.6.1. 함무라비(Hammurabi): 죄가 가져오는 결과

arnam kabtam šēressu rabītam ... līmussuma	(33) (샤마쉬 신께서) 그에게 큰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CH xliii 47)
---	--

죄 지은 자가 벌을 받기를 기원하는 이 말은 함무라비 법전(The Code of Hammurabi)에 기록되어 있다. 즉 왕이 제정하여 선포한 법전을 어기고 죄를 짓는 자는 샤마쉬 신께서 직접 내려주신 법을 어기는 셈이니, 샤마쉬 신께서 직접 큰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고 저주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인이 종교적 법을 정치적으로 전용하는 예를 볼 수 있다. 죄를 처벌하는 신의 이미지도 드러나는데, 이런 경우 자신의 죄가 아니라 죄를 범한 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6.2. 사르곤(Sargon):¹⁴⁾ 죄가 가져오는 결과

<p>ina qereb tamhāri sikiptašu šakāni u irih pīšu elišu turrimma annašu šuššī qātī ašši</p>	<p>(34) 내가 전투에서 (우르씨를)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들었고, 그가 자신이 뱀은 건방진 말들을 책임지고 벌을 받도록 (기도했다.) (TCL 3, 124, Sar)</p>
---	--

다른 사람이 죄의 결과 즉 벌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다시 한 번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아시리아 제국에서 많이 사용했던 문학양식 ‘신에게 쓰는 편지(Letters to god)’에 이 문장 들어있다. 이 문학양식은 실제 벌어진 역사 사건 특히 아시리아 왕이 지휘한 군사원정을 묘사하는 것이 주제인데, 매우 과장된 표현과 직접 인용이 많이 들어가서 문학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그래서 지금 아시리아의 사르곤 왕은 자기를 대적하는 적국의 왕을 맞아 손을 들고 저주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우라르투 왕 우르씨는 아시리아 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르곤을 비웃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아시리아 왕과 그가 섬기는 신을 모독한다. 그래서 사르곤은 지금 그의 건방진 말을 본인이 책임지고 신들의 벌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2.6.3. 사르곤: 죄를 선포

<p>ša ina adē Aššur ... iḫtūma ibbalkitu ittiya</p>	<p>(35) 그들이 아슈르¹⁵⁾ 신 (앞에서 맺은) 맹세를 (여기는) 죄를 범하고 ... 내게 반란을 일으켰다. (TCL 3, 310, Sar)</p>
---	--

14)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사르곤이라고 표기하였으나 이 왕의 이름은 원래 Šarru-kīnu이다. ‘샤루-키누’라고 음역할 수 있다. 사르곤이라는 이름은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Sargon을 따라 쓴 것으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자음 ‘싸멕’에 해당하는 ‘쓰’를 쓰는 것이 적당하며 ‘싸르곤’이라고 써야 더 정확한 음역이 된다.

15)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아슈르라고 썼으나 이 이름은 원래 Aš-šur이며

<p>adê rabûti ša Aššur la niššuru niḫtû ina ṭābti RN</p>	<p>(36) 우리가 아슈르 신의 위대한 맹세를 지키지 않았고, 아슈르바니팔¹⁶⁾ 왕의 호의를 저버리는 죄를 지었다. (Streck, Asb. 78 ix 73)</p>
--	--

이 두 경우는 아시리아 왕들이 신을 증인으로 세운 맹세를 통해 봉신들을 묶어두는 관행을 잘 보여준다. 특히 이런 봉신서약을 가리키는 ‘아데’(adê)라는 낱말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것이 신에 대항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그에 타당한 벌을 내리기 위해 군사원정을 떠난다고 주장한다. 역시 종교적 죄라는 개념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2.6.5. 에살하돈(Esarhaddon)¹⁷⁾: 죄를 짓지 않기로 약속

<p>aššu ana mišir mātātesunu la ḥate</p>	<p>(37) (적들이 강화를 위한 사신들을 보내) 그들의 나라 국경을 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Thompson, Esarh. v 30)</p>
--	---

이 말은 어찌 보면 전혀 종교적 의미가 없는 말이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 에살하돈은 현재 적국의 사신을 맞아 조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며, 그 조약에 의해 국경을 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있다. 이때 국경을 넘는 행위를 죄라고 표현한 이유는 조약이 양측의 신들을 증인으로 세우

자음 š을 두 번 표기해야 한다(마치 ‘아슈-슈르’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 자음은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하기 어려우므로 ‘s’을 두 번 사용하여 ‘앗슈르’라고 쓰는 것이 비교적 정확한 음역이다.

16)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아슈르바니팔이라고 적었으나 이 왕의 이름은 원래 Aššur-bāni-apli이며 ‘앗슈르 신이 내 후계자를 지으신 분이다.’라는 뜻이다. ‘앗슈르-바니-아플리’라고 음역할 수 있다.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이름은 영어권에서 관습적으로 쓰는 이름을 그대로 따라 쓴 것으로, 현재 상태로는 오히려 원어로 말이 되지 않는 형태이다.

17) 이 왕의 이름은 원래 Aššur-aha-idina이며 ‘앗슈르-악하-이디나’라고 음역할 수 있다. 히브리성서에 이 이름이 한 번 나오는데(에스라 4:2), 에살하돈이라고 옮겼다. 사실 ‘에싸르하돈’이라고 옮겨야 옳다.

고 약속하는 종교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조약에 포함된 조항을 하나라도 어기면 증인으로 세운 신들에게 죄를 짓는 셈이 된다. 역시 제의적 죄를 정치적으로 전용하는 예다.

2.6.6. 에살합돈: 죄를 고백

hiṭtu dannu ana DN aḫtu	(38) 내가 신께 큰 죄를 지었다. (ZA 40, 256:21, Esarh)
-------------------------	--

아시리아 왕 에살합돈의 명문에 등장하는 말로 ‘신에게 쓴 편지’ 형식으로 창작된 글이다. 슈브리아 왕이 에살합돈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다. 조약을 맺은 대로 죄수를 잡아 아시리아에 넘기지 않은 것은 자신이 아슈르 신에게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역시 정치적 관계에 제의적 죄라는 개념을 전용한 좋은 예다.

2.6.7. 네르갈-샤르-우쭈르(Neriglissar):¹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조심

šettim u hiṭti ana la šubši	(39) (내가 고대의 신전 터에 이 신전을 건축했으니,) 아무런 부주의한 행위나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VAB 4, 216 ii 20, Ner)
-----------------------------	---

신-바빌론 제국의 네르갈-샤르-우쭈르 왕의 명문에 포함된 문장이다. 명문의 전체 주제는 신전을 건축하여 신에게 헌정하는 예식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을 찬양하고 건축자 왕의 독실한 신앙을 드러내야 한다. 왕이 신전을 건축한 일 자체가 신 앞에서 헌신된 태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만, 이 왕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건축과 관련된 모든 설계와 공사 과정이 아무런 흠도 없이 신의 뜻에 부합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고대 신전의 집터를 찾아서 거기에 맞게 신전을 건설한 것

18) 이 왕의 이름은 원래 Nergal-šar-uššur이며 ‘네르갈-샤르-우쭈르’라고 음역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들은 이 이름을 듣고 Neriglissar라고 부주의하게 음역하였으며, 영어권에서 아직도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다. 이미 범한 죄를 용서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혹시 생길지 모를 불상사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매우 독실한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전형적인 메소포타미아 왕의 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2.6.8. 나부-나이드(Nabonidus):¹⁹⁾ 죄를 선포

libbašu ītama ħiṭīti	(40) 그는 마음 속에 범죄를 계획하였습니다. (VAB 4, 270 i:3, Nbn)
----------------------	--

신-바빌론 제국 마지막 왕이었던 나부-나이드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마음 속에 죄를 지으려고 계획했다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정치적 죄나 범죄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나보니두스는 달의 신 썬(Sîn)의 제의를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썬 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결국 종교적인 죄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또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

2.6.9. 나부-나이드: 죄를 짓지 않기

la iḥattû ana ilûtika rabīti	(41) 그들이 위대한 당신의 신성을 향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VAB 4, 252 ii 15, Nbn)
------------------------------	---

이 말은 왕정문서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문의 일부이며, 다른 사람들이 신께 죄를 짓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미 지은 죄를 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들이 지을지도 모를 죄를 언급하고 있어서 매우 예외적인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단순히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제의적인 죄를 고백하는 행위와 구별되며, 개인적인 신심을 염두에

19) 이 왕의 이름은 원래 Nabû-nāid이며 ‘나부-나이드’라고 음역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들은 이 이름을 듣고 Nabonidus라고 부주의하게 음역하였으며, 영어권에서는 아직도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aj irš' ḥiṭti	(42) 아무런 죄도 짓지 않도록 해 주소서. (CT 34, 37:77, Nbn)
---------------	---

죄를 짓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문으로, 신-바빌론 왕 나부-나이드의 또 다른 왕정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미 저지른 죄도 아닌데 미리 이렇게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며 드리는 기도는 기도자의 돈독한 신심을 오롯이 드러낸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 이해관계에 치우쳐 있던 제의적 기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ana la rašē ḥiṭtim	(43) (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신과 여신들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입니다.) (VAB 4, 262 i:7, Nbn)
--------------------	--

나부-나이드 왕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신께 드리는 말씀이다. 죄를 지을까 두려워서 쉬지 않고 모든 신들께 기도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역시 매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실한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ina ḥiṭu ilūtika ... šūzibanni	(44) 당신의 위대한 신성에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 나를 구원하소서. (VAB 4, 252 ii 20, Nbn)
--------------------------------	---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구원해 달라는 말은 역시 신-바빌론 제국 왕 나보니두스의 기도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니 그 벌에서 구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예 죄를 지을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역시 신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 신실한 마음을 절절하게 드러낸다.

2.7. 편지

가장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에도 종교적 죄가 언급되어 있다.

2.7.1. 죄의 정의

<p>mīnam tētanappaš ša ilum la uššuru u arraka kabbutumma tukabbat</p>	<p>(45) 왜 너는 계속해서 신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여 네 죄를 더 크게 키우느냐? (TCL 20, 94:19, OA Letter)</p>
--	---

이 문맥을 추정하자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나무라며 그러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편지를 쓴 사람이 사용하는 죄의 정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신들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 물론 이 글이 철학이나 윤리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잣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허락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신이 어떤 행위를 허락하지 않는지 결정하는 권위는 직업 종교인들에게 달려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7.2. 죄가 가져온 결과

<p>ḥieti epti ana ilāni</p>	<p>(46) 내가 내 죄를 신들에게 고백했으나 (내 병을 낫게 해 주시지 않는다.) (EA 137:33)</p>
-----------------------------	---

이 말은 그발(Byblos) 왕 립-앗디(Rib-Addi)가 파라오 아케나톤에게 쓴 편지이다. 편지의 주요 내용은 자신의 영토를 지킬 원군을 보내달라는 것이지만, 지금 이 문장에서는 자신이 겪는 고통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의 말 속에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 병에 걸리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아 병에서 낫게 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물론 이 원리가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원리는 아니기 때문에, 죄를 고백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다.

3. 요약과 분석

지금까지 아카드어 문학 작품에 나오는 제의적 죄의 개념에 관해 폭넓게 조망해 보았다. 발견된 사실을 주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1. 종교적 죄의 정의

죄는 기본적으로 신이 허락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행위이며(1-2, 45) 신을 섬기는 제의 규칙을 어긴 실수이다(17, 24). 물론 고의적으로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없겠지만, 평소 마음에 신을 담아두지 않던 사람은 이런 죄를 짓게 되고(24), 신의 노여움을 사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제의적 죄는 모르고 지은 죄일 가능성이 높으며(15-16), 또는 본의가 아니었다고 고백하며(4-6, 18) 직업 종교인들의 도움을 받아 자비로운 신께(12-14) 용서를 비는 것이 관습이었다(8-11, 20-23, 25, 27). 특정한 개인이 지은 죄는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3, 19, 26, 29-31), 사망 후에도 유죄 선고를 받은 영혼은 평안히 저승세계로 가지 못한다는 생각도 존재하였다(19).

3.2. 종교적 죄를 용서받기

제의적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결과 어떤 종류의 고생을 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 종교인의 도움을 받아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거나(8-11, 25, 27) 주술적 제의를 시행하는데(20-23), 이때 다양한 주문을 외우며 신을 위로하게 된다. 죄를 씻는 정결례는 매우 정교한 예식으로 정형화되어 있으며, 주로 강물로 씻거나 죄인과 관련된 물품을 강물에 던지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죄를 지은 개인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신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며 후회하고 고백하고(18),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신들을 찬양하기도 한다. 이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과 같은 특별한 호칭(epithet)을 만들어 신을 위로한다(12-14).

3.3. 제의적 죄의 처벌

제의적 죄를 지은 사람은 신의 처벌을 받아 질병이나 재앙을 겪게 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29-31, 46). 다신교이기 때문에 신에 따라 죄인을 더욱 가혹하게 처벌하는 신들도 존재하며, 주로 저승세계를 다스리는 신들이 죄인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그리고 이미 사망한 영혼도 저승에서 평안히 쉬지 못하고 떠돌게 될 수도 있다(19). 한편 죄의 처벌을 촉구하거나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반대파에 속한 사람들을 공격하거나(35-36, 40) 저주하거나(34) 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은 신의 처벌을 받게 되리라 위협하는 문맥에서 주로 등장한다(33). 그 외에 죄를 지어놓고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거나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호소하거나 죄를 고백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다고 한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지혜문학의 주제와 연결된다(26-27).

3.4. 제의적 죄를 정치적으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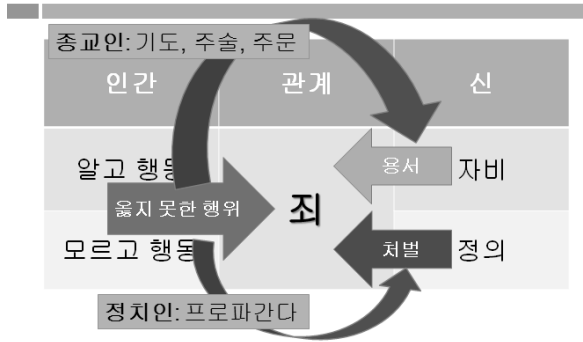
고대 서아시아의 세계는 신과 관련되지 않은 영역이 따로 없었지만 정치인들만큼 종교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층도 없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도 신들의 뜻을 먼저 구하고 신탁을 받아야 행군을 시작했고 조약을 맺을 때도 신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최종 체결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왕에게 반기를 들고 대항하거나 조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제의적 죄를 범한 것으로 묘사하였다(35-37). 특히 신-아시리아 왕들의 문서에서 신들이 이런 죄인을 철저히 처벌해 주시기를 비는 내용이 자주 등장했고(34), 신들의 처벌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데 망설이지 않았다(29).

3.5. 개인적인 신앙을 드러내는 제의적 죄

이렇게 고대 서아시아의 전통에 의하면 제의적 죄는 매우 제의적이고 실제적이며 현실적 이해관계와 직접 맞닿아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앙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현상들도 발견된다. 신-바빌론 제국의 왕들 중에서 네르갈-샤르-우주르와 나부-나이드는 신전을 건축하는 훌륭한 업적을 쌓으면서도 바빌론 왕들이 전통적으로 누리던 권위를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제의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39, 41-44). 신들이 직접 지명하여 왕위에 앉혔고 모든 행위가 신들의 축복을 받아 성공했다고 자부하던 선대왕들과 달리 이들은 신전 터를 잡기 위해 고대 신전 터를 발굴하여 전통에 맞게 사업을 진행시켰으며, 기념비를 세우면서도 자기와 자기 후손이 신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 달라는 기도를 잊지 않았다(41-44). 특히 나부-나이드는 “당신의 위대한 신성에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44), 죄로 인해 별로 받은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신을 거슬러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종교적 체제와 죄에 관한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상을 대표하고 있다.²⁰⁾

20) 물론 개인이 겪는 행복과 불행, 불행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등을 신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다루었던 기도문과 지혜문학 작품들은 이미 기원전 2000년경에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Thorkild Jacobsen, “Ancient Mesopotamian Religion: The Central Concern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Vol. 107, No. 6, 1963, pp. 473-484). 그러나 고대 서아시아의 개인 신앙은 주로 개인이나 가문의 성공, 후손 얻기, 질병 고치기 등과 관련되었다(Thorkild Jacobsen, “Mesopotamian Religions, An Overview,” *Encyclopedia of Religion*, 2nd Ed., Vol. 9, 2005, 5962). 현실적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상관없이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독실한 태도를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왕들이 그런 태도를 보인 경우는 신-바빌론 시대 이전에 발견된 적 없다.

종교적 '죄'의 역학관계



3.6. 고대 서아시아 종교 전통의 변화

논의를 정리하자면 고대 서아시아 전통에 의하면 종교적 죄는 제의적 실수라고 간주되었고, 이에 분노한 신이 질병이나 재앙을 벌로 내린다고 믿었다. 즉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다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종교로 눈을 돌리게 되고, 확실하고 공인된 제의를 통해 실수를 용서받고 정상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직업 종교인들이 큰 역할을 맡게 되는데 기도나 주술, 주문 등으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특정인의 죄가 처벌을 받도록 저주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전통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신-바빌론 시대가 되면 죄와 처벌을 예방하려는 기도나 행위가 더 강조되었으며, 특히 종교적인 죄를 벌과 분리하여 개인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종교가 전통이나 사회적 기관으로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평안을 보증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순간이다.

참고문헌

- Abusch, Tzvi (2002), *Mesopotamian Witchcraft, Toward a History and Understanding of Babylonian Witchcraft Beliefs and Literature*, Leiden and Boston and Köln: Brill and Styx.
- Bottéro, Jean (2004), *Religion in Ancient Mesopotami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lland, Glenn S. (2009), *Gods in the Desert, Relig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Lanham: Rowman & Littlefield.
- Jacobsen, Thorkild (2005), “Mesopotamian Religion, An Overview,” *Encyclopedia of Religion*, 2nd ed., Vol. 9, pp. 5946-63.
- _____ (1976), *The Treasures of Darkness: A History of Mesopotamian Relig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63), “Ancient Mesopotamian Religion: The Central Concern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Vol. 107, No. 6, Cuneiform Studies and the History of Civilization, pp. 473-484.
- Oppenheim, A. Leo (1977), *Ancient Mesopotamia, Portrait of a Dead Civiliza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Snell, Daniel C. (2011), *Relig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aver, Ann M. (2004), “The “Sin of Sargon” and Esarhaddon’s Reception of Sennacherib: A Study in Divine Will, Human Politics and Royal Ideology,” *Iraq* 66, pp. 61-66.
- Klawans, Jonathan (2000), *Impurity and Sin in Ancient Juda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urnside, Jonathan P. (2003), *The Signs of Sin, Seriousness of Offence in Biblical Law*, JSOTSupp 36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 Van der Toorn, Karl (1985), *Sin and Sanction in Israel and Mesopotamia, A Comparative Study*, Assen: Van Gorcum.

원고 접수일: 2016년 8월 18일

심사 완료일: 2016년 11월 10일

게재 확정일: 2016년 11월 12일

Abstract

Religious Sin Attested in Akkadian Literary Texts

Yun, Sungduk*

This essay aims to explore Akkadian literary texts that include terms for religious sin, such as *šettu*, *šettūtu*, *arnu*, *annu*, *targīgu*, *haṭû*, *hiṭītu*, *hīṭu*, and considers what kind of religious tradition exists behind them. The Akkadian texts reveal to us that religious sin was largely considered to be a ritual mistake, unintentionally committed by an individual. The Gods could forgive the sinner or punish the perpetrator with diseases or other disasters. Professional religious personnel could help their clients with certain prayers, rituals, or incantations, but politicians made use of the concept of religious sin to criticize their opponents and to imprecate curses upon them. In the Neo-Babylonian period, it became much more important to prevent the committing of sins or resulting punishments, so anticipatory prayers and beneficial acts were emphasized. It was an astonishing change of religious tradition, in that the concept of religious sin broke out from its function as a practical remedy and individual faith came to be pursued instead.

* Lecturer, School of Theology, Yonsei University